

어명소 제2차관, “휴가철 교통안전·방역 철저” 당부

- 28일 죽암휴게소 찾아 교통안전 및 방역대책 점검 국민안전 최우선 강조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, 7월 28일(목)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를 방문하여 휴가철 교통안전 대책과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이날 어 차관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을 보고받은 뒤,
 - “이번 휴가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은 첫 번째 휴가 기간인 만큼, 고속도로 통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”면서, “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철 휴게소 방역 및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줄 것”을 당부했다.
- 더불어, 어 차관은 “최근 변이 발생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”이라고 말하며,
 - “휴게소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 시설이니만큼, 실내 마스크 착용 및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한다”고 덧붙였다.
 - 또한, “휴가철에는 도로정체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에 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”면서, “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한 현장 교통상황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, 폭염·풍수해에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”고 요청했다.
- 점검을 마친 어 차관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현장 업무를 수행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,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근무해줄 것을 당부했다.

2022. 7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